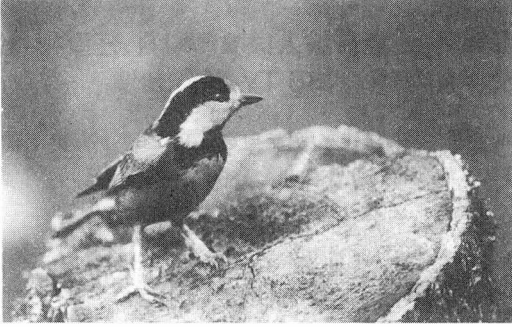


곤줄박이

学名 *Parus varius varius*

英名 Varied Tit



단풍철을 마감하는 11월. 힘겹게 매달린 낙엽이 안스러울 즈음이면 한반도에棲息하는 대다수의 텃새들은 무리를 짓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다른 족속간의 조류와도 혼성으로 群棲하기 좋아하여 하루에도 수킬로미터씩 옮겨다니며 먹이를 찾아 標行을 계속한다.

이 떼새들의 이동은 대개 고산에서 야산으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질서정연하게 반복하고 生態學的 처지가 비슷한 새끼리 모이게 마련이다.

곤줄박이도 이들과 같은 부류의 새이나 다소 정착성의 기질이 있다. 암자나 사찰 주변, 먹이나 서식환경이 좋은 계곡에는 항상 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대단히 호기심이 많은 새이다.

내장산의 원적암 장훈스님은 비자나무 열매를 매일같이 일과로 이들에게 주었더니 결국은 손에까지 얹아 먹이를 받아 먹는 기변으로 새를 부르는 스펀으로 소문이 났다.

먹이는 개동백과 같은 딱딱한 열매를 부리로 망치질하듯 두들겨 까먹고, 피마자열매 껍질같은 풀썩기의 월동하는 나무에 붙은 집은 이들이 가장 즐기는 먹이다. 결실기의 산열매가 없는 철이나 번식기에는 곤충만을 포식하는 산림익조로 정평이 나있어 산림해충에는 없어서는 안될 천적조류이다.

글·사진 鳥類研究家 李正雨

또한 먹이가 될 산열매는 나무껍질틈이나 돌틈, 땅속에 교묘히 감추어 두었다가 꺼내먹는 비축성도 있어 타 조류에 비해 특이한 行態를 갖고 있다.

등산길에 이빨사이로 내는 미세한 바람소리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겁없이 사람가까이 접근하기도 하여 미려한듯하나 위험을 느낄때는 기민한 몸움직임으로 재난을 피한다.

암수는 같은 크기, 같은 색깔의 참새크기이나 전체 색깔이 밤색이고 이마와 턱밑이 우스꽝스럽게 치장되어 전형적인 새모양을 벗어난 느낌을 준다.

번식기는 6월, 고목에 뚫린 나무구멍이나 산촌 마을의 뒷곁에 달아놓인 명석말이 속에도 산란하는 습성이 있어 인공새집에도 잘 깃든다.

보금자리의 주재료는 이끼이고 産座에는 동물의 털, 새의 깃털을 깔고 적갈색 점무늬가 있는 알(19mm×15mm)을 한배에 6개정도 낳아 13일 품으면 어린새가 부화된다.

곤충으로 기른 어린새는 약 20일 내외에 성장하여 등지를 떠나 어미새를 따라 다니며 생존을 익힌다. 독립을 할 수 있을때는 어느날 뿔뿔히 헤어져 버린다. 山勢가 수려한 원시산림을 좋아하는 대륙성 조류이기때문에 전국의 국립공원의 해상공원을 제외하고는 어느곳이나 이 새가 서식을 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도서지방의 섬에는 가까운 육지에서 일시적으로 날아온 개체외에는 희귀하여 거의 찾을수 없으나 우리나라 최서남단인 가거도, 즉 목포에서 줄잡아 140km나 떨어진 落島, 소흑산도에 이 곤줄박이의 서식밀도가 대단히 높은 것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옛날 옛적에 육지와 陸續에 있었던 것으로만 추측될 뿐이다.

혹한이 지속되는 엄동에는 도심의 공원이나 교정, 인가의 정원에까지 깃드는 전형적인 한국의 텃새이다.